

오계숙-흙, 나무 여인

Earth, Tree Woman

작가 정보: www.ke-sooklee.com

전시 기간: 2018.04.01(일) ~ 04.20(금)

전시 장소: 갤러리 아트링크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길 66-17 / 국립 현대 미술관 서울관 옆) www.artlink.co.kr T. 02-738-0738,

전시 문의: 이수진 010-2639-9122, 02-738 0738

자아에 눈 뜬 인간으로, 희생적인 어머니로, 창조적인 예술가로 성실히 살아온 78세 여성작가 오계숙은 쉽 없는 혁신을 통해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만들어 가며 세계 곳곳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서 나고 자랐지만 생의 대부분을 미국서 보낸 작가는, 인류 사상사 속에서 페미니즘이 일렁일 때 부터 거대한 파도가 되고 있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동시대의 삶을 살아오며 페미니즘을 주제로 천착하여 자신의 예술세계를 심화시켜 왔다.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사유를 심화한 그의 작품은 여성성의 우주적 세계를 형상화 한다. 빈티지 손수건(행주·뜨개질 레이스 등 옛날 여자들이 만든 생활 소품들)에 더해진 오계숙의 바느질-드로잉은, 시간을 거슬러 이름 없는 여인들과 함께 공동작업 한 작품이다. 대부분 눈물과 땀으로 적시었을 그것들이지만 때론 유혹의 손수건으로, 첫아기의 턱 받침 손수건으로 추억의 심연에 고이 모셔졌던 이것들을 통해 오계숙은 옛날 여인들과 만난다. 한 귀퉁이에 곱게 수를 놓으며 무에서 유를 만드는 뿌듯함을 느꼈을 여인들,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배워서 실 타래로 섬세한 레이스를 만드는 마술로 창조의 목마름을 적셨을 그 여인들을 작가는 기억하고 기념한다. 나아가 작가는 그 안에서 여인들의 꿈을 읽어내고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자신의 드로잉을 바늘과 실로 더하고 그 여인들의 예술 노동 흔적을 종이 찰흙으로 떼내 작품의 일부가 되게 한다. 가볍고 가녀리게 표현된 그의 작품 어딘가엔 늘 숨구멍이 있다. 한지와 실 매듭처럼 가벼운 재료로 창조된 그의 작품 들은 그 앞을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바람결에도 일렁인다. 찰나의 순간을 영롱하게 빛나다 비눗방울처럼 터져 사라져버린 수 많은 여인들의 여리고 고운 마음처럼. 결국 작가는 더 큰 여성성으로 회귀한다. 만물을 길러내고 죽음까지도 덮어서 다시 생명으로 틱워 내는 흙-여인·나무-여인으로서 작가는 손수 만든 한지에 자유롭고 편안하게, 춤추는 듯한 작가의 몸짓을 먹과 초록으로 그대로 옮겨 담고 바느질 한다.

오계숙의 작품은 괴테의 파우스트 마지막 문장을 떠올리게 한다- 영원한 여성성이 우리를 구원한다.

글_아트링크 이경은